

일본의 ESG투자의 현황과 시사점 [중]

- 2018년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ESG 투자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가 다소 부진했던 일본의 경우도 성장률이 300% 이상을 기록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 이런 추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음
 - 일본의 ESG 투자가 증가한 요인으로 1)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 2)연기금 투자 증대, 3)비재무정보 공시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음
- 일본의 비재무정보 공시가 활성화된 것은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가치협창 가이드스를 도입한 것이 주요요인이며, 이것은 기업과 투자자가 정보공시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일본의 지속가능 투자 합계액은 2020년 기준 310조엔에 이르며 ESG 전반에 대한 투자는 204조엔을 차지
 - 자산 종목으로 살펴보면 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용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권과 부동산이 20% 이상 증가한 반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23%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I. 일본의 ESG 투자 동향

-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반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ESG 투자는 대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유럽과 미국에서는 ESG 투자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가 다소 부진했던 일본의 경우도 성장률이 300% 이상을 기록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

〈도표 1〉 ESG 투자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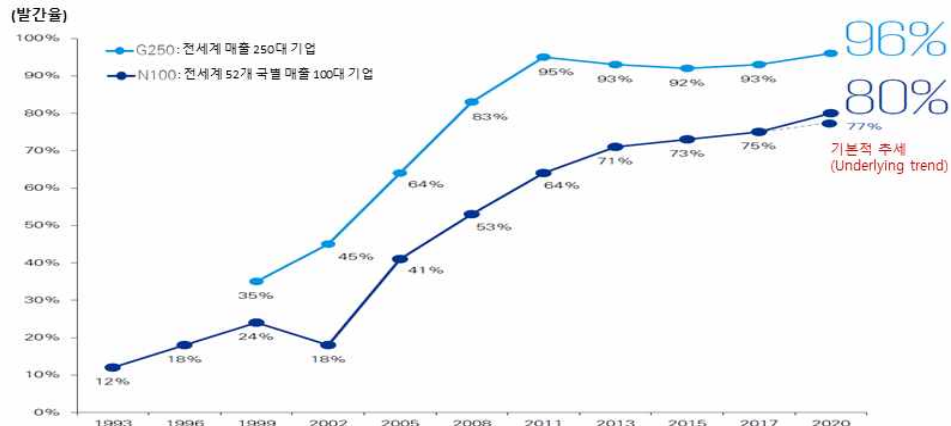


- 2018년 현재 유럽, 미국에서 ESG 투자액 증가
- 일본의 성장률 30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
- 최근 코로나로 금융완화, 즉 저금리 영향으로 전 세계적 잉여자금이 풍부, ESG투자로 자금이 유입
- 코로나로 재무정보 업적 평가 어려움, ESG경영 우수기업 성과 평가 주목

출처: The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6",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8"를 토대로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작성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221156>

- ESG투자의 기초가 되는 ESG보고서 발간은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일본의 10대 기업은 보고서 발간 비율이 100%, 한국의 100대 기업 발간율은 70~80% 수준(국내기업 전체 약 150개 공시)이며 ESG 시장동향과 투자증가 요인은 다음과 같음

〈도표 2〉 글로벌 비재무보고서 증가 추이(1993년~2020년)



注 1: 100개 국가(5,200개 기업)와 글로벌 250개 기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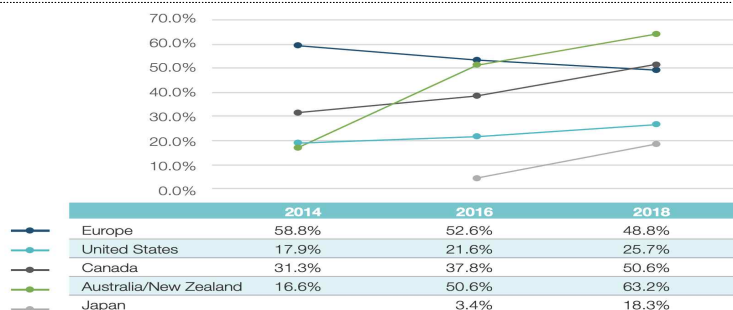
注 2: N100의 기본적 추세는 2017년과 2020년의 동일 국가 및 관할권에서 상위 100대 기업을 분석할 때의 지속가능성 보고 비율을 반영

출처: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0

1)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

-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종전 주주에 대한 가치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비재무성과를 통합한 지속가능경영 체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때 재조명받게 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ESG임.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적완화와 이에 따른 저금리의 영향으로 세계적 유동성 자금이 ESG투자로 풍부하게 유입
 -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무정보 업적평가 어려운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며, ESG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성과에 주목
- <도표 3>를 보면 주요국가의 총투자 대비 지속가능투자의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2016년까지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유럽을 제치고 2018년에는 호주/뉴질랜드가 63.2%, 캐나다가 50.6%로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한편 일본은 2014년까지는 0%이었으나, 2016년 3.4%에서 2018년 18.3%로 급증하고 있음

〈도표 3〉 총 투자 대비 지속 가능 투자 비율(2014년~2018년)



Note: In 2014, data for Japan was combined with the rest of Asia, so this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출처: GSIA,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2) 연기금 투자 증대

(1) GPIF¹⁾ 투자의 증가

- 일본 연기금을 운용·관리하는 GPIF는 2017년 10월 투자원칙을 개정해 ESG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
 - GPIF는 주식에 머무르지 않고 채권 등 모든 자산에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추진하면서 2018년부터는 ‘ESG 보고서’를 발행
 - ESG 투자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GPIF의 ESG 투자는 투자원칙 개정을 통해 장기에 걸쳐 투자하도록 변경함으로써 GPIF의 투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GPIF의 ESG 투자는 종전 단기 투자 수익에 집중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특성을 가지게 됨
 - ESG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기업의 ESG 도입이 강화되고 있는지, 혹은 이것에 대한 제 3자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2)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 ESG 투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침임.
- 이 용어는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생겨남
 -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도입목적임
 - 이 제도는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도입해 운용 중에 있음
- 일본에서는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업경영권과 자율권 침해, 공시 의무 과정에서 전략 노출, 의결자문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향후 이해상충 등의 우려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음

1) GPIF: 일본 연금적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 그러나 2016년 상장회사 설문조사와 2017년 투자원칙 제정과 GPIF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ESG 투자와 연계하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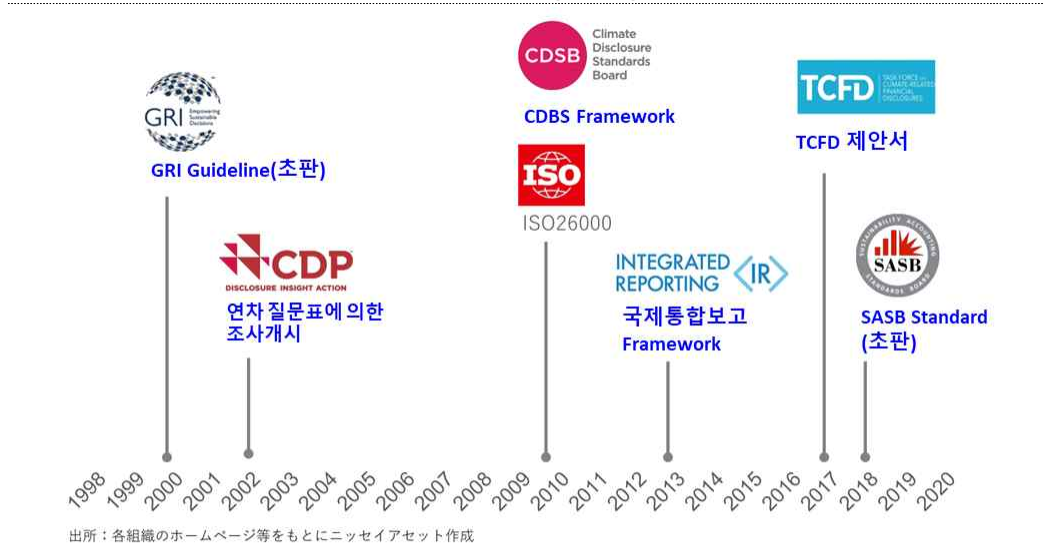
〈도표 4〉 GPIF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연도	스튜어드십 / 각종 Initiative
2015 이전	-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스튜어드십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침’ 공표(2014.5) - 투자원칙 공표(2015.3)
2016	- 상장기업 설문조사 결과 공표(2016.4) - ‘기업 Asset Owner Forum’, ‘Global Asset Owner Forum’ 설립 공표(2016.7) - ‘스튜어드십 활동 보고’ 공표(2017.1)
2017	- ‘스튜어드십 활동 원칙’, ‘의결권행사원칙’ 공표(2017.10) - 투자원칙 개정(주식 ⇒ 전자산, 2017.10)
2018	- Climate Action 100+참가(2018.10) - TCFD 찬성·동의 표명(2018.12)
2019	- 30% Club Japan Investor Group 참가(2019.12) -GRESB에 ‘부동산 투자가 멤버’로서 가맹(2020.3)

출처: JPX, GPIF의ESG投資と情報開示(2020)

- 한편 산업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글로벌 이슈화가 되면서 최근 다양한 ESG 관련정보 프레임워크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도표 5〉와 같음

〈도표 5〉 시대별 ESG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출처: JPX, ESG情報開示枠組み等の 特徴と動向

- 〈도표 5〉에 따르면 GR가 2000년 처음 등장했고 최근 IIRC 통합보고, TCFD, SASB 등이 등장하면서 다양화되었음
- 이처럼 ESG 관련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임.

○ 세계의 주요 ESG 정보 공시를 정리하면 〈도표 6〉과 같음

〈도표 6〉 세계 주요 ESG 정보공시 개요

명칭	대상	주요 특징
GRI Standard	ESG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환경·사회의 각 항목에 대해서 공시 항목·지표를 설정 2015년을 기준(Standard)이라는 자리매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Guideline → Standard)
CDP 질문표	기후·물·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물·산림으로의 대응에 관한 질문표를 매년 기업에 보내고, 그 최신 내용의 분석결과 등을 기관 투자자 및 고객 기업에 제공 질문표 조사로 정보 공시하기 때문에 기준은 아니지만 기업의 정보 공시 내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CDSB Frame Work	환경·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에게 유익한 환경 및 기후에 관한 정보를 기업의 주요한 보고서로 공시하기 위한 어프로치를 정한 프레임워크
ISO26000	ESG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을 포함한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공시를 위한 기준은 아니지만, 기업의 정보공시 내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제통합보고 Frame Work	재무 ESG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관련지어 조직이 어떻게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가를 설명하는 통합보고서라는 새로운 공시 형태를 창출 통합보고서를 작성, 내용 요소 및 사고방식이 제시되어 있음
TCFD 제안서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를 주요한 연차보고서 등으로 공시하도록 제안 금융안정이사회(FSB)에 의해 설립된 TF에서 검토가 이루어짐
SASB Standard	ESG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77개의 산업별로 구체적인 공시 항목·지표를 설정 개발단계에서는 미국기업을 위한 공시 기준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공시 기준으로 자리매김 산업별 기준 개발에 총 2,800명이 넘는 실무자 참여

-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
-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힘쓰는 국제 NGO로, 2000년 설립된 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전신. 주요 특징으로는 기업의 주주인 기관투자자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관심있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수집, 공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시의 표준화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유가증권보고서 등에 기후변화 정보의 공시를 추진하고 있음. CDSB는 기업 및 환경 관련, 기타 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감사법인 및 기업, 표준화기관, 규제 당국과 긴밀한 파트너십(8개 기관)을 통해 활동. 2010년 'CCRF: 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를 발표
-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금융안정이사회(FSB)에 의해 설치된 '기후관련 재무정보공시 TF'는 연차 재무보고서에 재무에 영향을 주는 기후관련 정보의 공시를 장려하는 보고서를 2017년 6월 공표. 기업이 기후변화의 리스크·기회를 인식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ESG 투자·용자를 하는 기관투자자·금융기관이 중요시하고 있고, TCFD 보고서에서도 그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음
-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심의회'는 업종별 정보공시 기준 책정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상 중요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공시'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출처: ニッセイ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ESG推進室/投資調査室, チーフ・アナリスト 林 寿和, 多様化するESG情報開示基準等の果たす役割と課題, 2019.12.20

3) 비재무정보 공시 활성화

- 일본 ESG 투자의 증가한 요인으로 비재무정보에 대한 다양한 공시 가이드라인의 활성화를 들 수 있음
- 일본에서는 비재무 정보를 담은 다양한 공시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제산업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치협창가이던스²⁾’에 주목 필요
- 일본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정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치협창가이던스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점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 가치협창가이던스는 기업과 투자자가 정보공시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시하고 있음

〈도표 7〉 일본의 대표적인 비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가치협창(價値協創) Guidance	IIRC 통합보고 Framework	GRI	SASB	TCFD
주체	경제산업성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적용 대상	기업, 투자자	투자 대상 기업	모든 조직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유가증권보고서, 연차보고 제출 기업	모든 채권·주식발행 주체
정보 사용자	기업경영자, 투자자	재무자본의 제공자, 장기 간 조직 가치창조 능력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해관계자	모든 이해관계자	투자자	투자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과 투자자가 정보공시 및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 지속적인 가치협창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치관, 비즈니스 모델, 지속가능성 성장성, 전략, 성과와 중요한 성과 지표(KPI), 거버넌스 6항목으로부터 공시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통언어로서의 역할을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주체, 투자자, 기업, 기준설정주체, 회계전문가 및 NGO에 의해 구성된 IIRC가 책정한 가치창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침 ‘전략 거버넌스·실적·예측과 조직의 가치창조의 관련성을 전달하기 위해 원칙주의 사고에 기반한 전략과 재무·비재무 자본의 관계정리를 요구 4개의 기초 개념과 9개의 내용 요소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표준으로서 2000년에 전산이 되는 GRI 가이드라인 제판을 발행 그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6년 최신판 ‘GRI Standard’로 이행 조직의 배경정보 및 중요요제 관리수법 등을 보고하는 공통 표준과 경제·환경·사회면의 임팩트를 보고하는 각 표준의 합계 800이 넘는 항목으로 구성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가이드라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분야 79개의 각 업종별로 중요한 지표를 특정하고 공시정보의 비교 가능성의 향상을 지향 미국증권거래소의 공시규칙으로 정해진 연차보고서상에서 비재무정보의 정보공시를 요청(향후 案으로 상장기업의 공시의 무조항도 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주체는 금융안정사회에 의해 설립된 금융 안정성 기구이며, 이를 논의하는 국제적 주도권을 그대로 사용 금융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 더불어 리스크와 기회 공시를 요구 기후변화에 관한 시나리오분석을 실시하고 거버넌스·전략·리스크·관라지표와 목표에 대해서 제도가 시·서류 공시를 장려

출처: (一財)企業活力研究所, 新時代の非財務情報開示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2018.3)より経済産業省編集

2) 가치협창가이던스(價値協創ガイダンス)는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가치협창을 위한 종합적 공시·대화 가이드스 ESG·비재무정보와 무형자산투자’

- 이처럼 일본정부가 비재무정보 공시에 적극적인 것은 일본 연기금의 ESG 투자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그중에서도 2017년부터 일본 연기금은 국내 주식 ESG 지수 선정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이 일본 정부의 가치협창가이던스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

〈도표 8〉 일본 연기금(GPIF)의 ESG 투자 연구

연도	ESG 투자·조사연구 등
2015 이전	- 스튜어드십 책임 및 ESG투자방법 조사연구(2014) - 책임투자원칙(PRI 서명) (2015.9)
2016	- 국내 주식 ESG지수의 공모(2016.7)
2017	- 국내 주식 ESG 지수 선정 공표(2017.7) - 글로벌 환경주식 지수 공모(2017.11)
2018	- 세계은행그룹과 채권투자에 있어서 ESG 고려에 관한 공동연구 공표(2018.4) - 'ESG 활동보고' 공표(2018.8) - 글로벌 환경주식 지수 선정 공표(2018.9)
2019	- ESG정보공시의 조사연구(2019.4) - TCFD의 기후변동 리스크에 관한 정보공시(2019.8) - INDEX Positioning 도입(2019.10)

출처: JPX, GPIF의ESG投資と情報開示(2020)

II. 일본의 ESG투자 현황

□ NPO법인 ‘일본서스테인어블투자포럼’³⁾에서 실시한 ‘서스테인어블 투자 잔고 앙케이트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합계액은 2020년 기준 310조 392억 7,5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

- 감소요인으로서는 본 조사는 매년 3월 말에 투자 잔고를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3월말의 주가가 하락한 점을 들 수 있음

* 본 설문조사 질의내용 URL 참조(<https://japansif.com/JSIFSsurvey2020qa.pdf>)

- ‘서스테인어블’ 투자가 감소한 것은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주가지수가 평균 10% 이상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도표 9〉 서스테인어블 투자 잔고 합계

(단위: 백만엔)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서스테인어블 투자 잔고 합계	336,039,620	310,039,275	-6.6%
총 운용자산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55.9%	51.6%	
참여 기관 수	43	47	
(참고) 대표적인 주가지수			
TOPIX	1,591.64	1,403.04	-11.8%
S&P500	2,834.40	2,584.59	-8.8%
상해종합지수	3,090.76	2,750.30	-11.0%
EURO STOXX 50 Index	3,351.71	2,786.90	-16.9%

출처: JSIF, サステナブル投資残高アンケート2020 調査結果, 2020.11.25

3) JSIF(Japan Sustainable Investment Forum): <https://japansif.com>, 2015년부터 매년 ‘서스테인어블투자잔고 앙케이트조사’ 실시. 2020년 조사의 경우 일본 투자기관 47개 응답(정보공개 45개, GPIF 등 비공개 2개 기관 포함)

- 운용수법으로 살펴보면 <도표 10>에 나타나듯이 다양한 형태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참여형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가장 주목되는 운용수법은 ESG 통합형 투자로 2020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도표 10> 운용수법별 서스테이너블 투자 잔고

(단위: 백만엔)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ESG 인테그레이션	177,544,149	204,958,018	+15.4%
포지티브 스크리닝	11,685,122	14,643,189	+25.3%
서스테이너블리티 테마형 투자	3,454,089	7,988,505	+131.3%
임팩트 투자		140,363	
의결권 행사	187,435,331	167,597,095	-10.6%
인게이지먼트	218,614,475	187,170,342	-14.4%
네가티브 스크리닝	132,232,671	135,263,369	+2.3%
국제규범을 토대로 스크리닝	25,560,889	28,308,180	+10.7%

출처: JSIF, サステナブル投資残高アンケート2020 調査結果, 2020.11.25

- 운용수법은 국제적인 SIF 단체 ‘The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정의를 바탕으로 JSIF에서 일본의 현상을 일부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됨

<도표 11> 운용수법의 정의

ESG Integration	통상적인 운용 프로세스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투자(아래 예시 참조) (투자 前) ESG 평가·스크리닝,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 ⁴⁾ (투자 後) 모니터링, 엔게이지먼트
Positive(best in class) Screening	업계의 동업 타사와 비교해서 ESG 관련 평가가 높은 기업 등에 투자
Sustainable Theme 형 투자	(주식) 재생가능에너지, 환경기술, 농업, 여성 활약, SDGs 등 지속 가능한 테마에 착목한 주식 투자 (채권) 그린본드·백신채권 등 지속 가능한 테마에 착목한 채권 투자 (기타 자산) 지속 가능한 테마 형의 주식·채권 이외의 투자(예: 부동산 투자 등)
Impact 투자	다음 ①~④의 요소 모두를 만족하는 투자 ①투자시, 환경, 사회, 경제의 어떤 측면에서도 중대한 네가티브 임팩트를 적절하게 완화·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적어도 하나의 측면에서 있어서 포지티브 임팩트를 창출하는 의도를 가질 것 ②임팩트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③임팩트 평가 결과 및 모니터링 결과의 정보공시를 수행할 것 ④중장기적인 관점에 기반하여 개개의 금융기관·투자자에게 적절한 리스크·리턴을 확보하려는 것
의결권 행사	의결권을 행사 *ESG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음 *의결권 행사의 판단을 자문 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도 포함
Engagement	엔게이지먼트 방침에 의거 주주로서 기업과 건설적인 대화 또는 주주 제안 수행

Negative Screening	윤리적·사회적·환경적인 가치관에 의거, 특정 업종·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지 않음 *ESG 평가(Rating)를 적용, 평가가 낮은 기업을 투자 대상외로하는 스크리닝의 경우는 포지티브 스크리닝으로 분류하도록 권고. 통상 네가티브 스크리닝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조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ESG를 평가하여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포지티브 스크리닝(포지티브 스크리닝에서 포함 종목을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종목도 결정됨)
국제규범 기반 Screening	국제기관(OECD, ILO, UNICEF 등)의 국제 규범에 의거한 투자. (예: 오슬로조약 → 산탄식(cluster bomb) 폭탄 관련 기업 투자 불가)

출처: JSIF, サステナブル投資残高アンケート2020 調査結果, 2020.11.25

- 자산 종목으로 살펴보면 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융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권과 부동산이 20% 이상 증가한 반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23%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도표 12〉 자산 종목별 서스테인어블 투자 잔고 (단위: 백만엔)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일본 국내 주식	127,883,665	97,844,264	-23.5%
외국 주식	81,545,344	50,166,491	-38.5%
채권	146,178,377	180,123,263	+23.2%
PE(Private Equity) ⁵⁾	1,732,175	1,129,313	-34.8%
부동산	6,775,910	8,162,100	+20.5%
론(융자)	10,455,582	10,421,862	-0.3%
기타	6,321,161	10,401,896	+64.6%

출처: JSIF, サステナブル投資残高アンケート2020 調査結果, 2020.11.25

(계속)

〈참고문헌〉

BUSINESS INSIDER “ESG投資は300%の成長率。世界で取り残されないため日本企業が今すべきこと”, 2020/8/20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221156>)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0”

GSIA,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JPX, GPIF의ESG投資と情報開示, 2020

JPX, ESG情報開示枠組み等の特徴と動向, 2020

ニッセイ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多様化するESG情報開示基準等の果たす役割と課題, 2019/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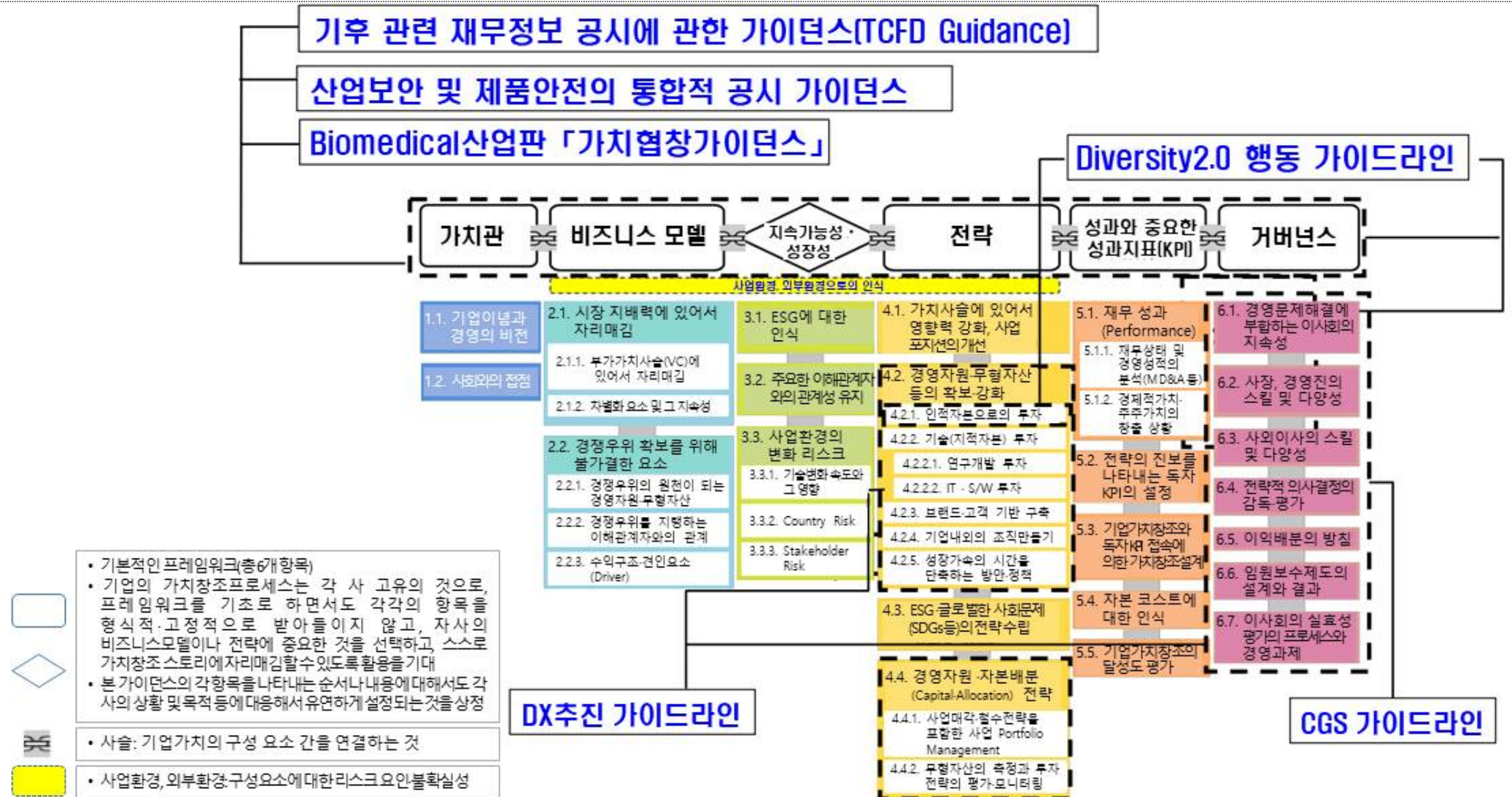
企業活力研究所, 新時代の非財務情報開示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2018.3)より経済産業省編集 JSIF, サステナブル投資残高アンケート2020 調査結果, 2020/11/25

4) DD(Due Diligence): 투자를 할 때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투자처에 당연히 요구해야 할 주의 의무 및 노력. (예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권 배려 책무, 투자·M&A 시 가치 및 리스크 조사 활동 등)

5) PE(Private Equity) 펀드란, 복수의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경영 지원 등 경영에 관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IPO나 매각을 통한 이익 창출이 목적으로 VC도 PE 펀드의 일종

【참고 자료】

경제산업성 '가치협창 가이드스' 구조



출처: 経済産業省 HP_企業と投資家の対話のための「価値協創ガイドス」(価値協創のための統合的開示・対話ガイドス-ESG・非財務情報と無形資産投資)